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2 SUMMER



Care & Love



Medical Essay

소아 아토피 질환의 관리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유방통, 월경 주기 따라 반복성항 구분 종괴 없다면 대부분 증상 호전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한 걷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김구상 교수 · 유방외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2 SUMMER

발행인 오경승

발행일 2022년 6월

편집인 옥철호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T. 051-990-3700~2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Kosin Spirit

04 정체성 회복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06 혁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김부경 교수·내분비내과

Medical Essay

08 소아 아토피 질환의 관리 정민영 교수·소아청소년과

12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김봉준 교수·심장내과

14 유방통, 월경 주기 따라 반복성향 구분 종괴 없다면 대부분 증상 호전
이희승교수·유방외과

16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한 걷기 이환호 교수·이비인후과

19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Culture & Life

20 푸른 축제 김희자·수필가

24 첫사랑의 기억처럼...밀양 백운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28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박은총

Kosin Inside

30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32 [환우 기고글] 선생님 안녕하세요

34 칭찬합니다

36 원목실 추천도서

37 포커스뷰

Donation

42 진료시간표

46 KOSin 사랑인

정체성 회복

‘누가 부자인가?’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의 가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고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돈은 열린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어르신은 많은 재산은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90세의 어르신에게 무엇이 부요의 기준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일까요? 돈이 전부라는 획일화의 위험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절대 신이라 여겨지는 돈 이상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게 된 복음병원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가난한 복음병원이 되었습니다.

부요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고집과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부요를 증명하는 재정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충 서서 1년 동안 받을 월급이 없었던 장기려 박사님의 헌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거대해진 조직, 높은 건물, 잘 갖춰진 시설들로 꾸며진 가난한 복음병원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후배들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어,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절망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 오늘입니다.

무엇보다도 슬픈 현실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가 두렵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내일과 후배들의 희망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작점은 정체성 회복입니다. 복음병원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전진할 수도 힘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수 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현장은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게 하는 떡과 음료가 제공된 것이 아니라 목마르고 굶주린 인생들과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관계를 증거하는 자리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6:56-57)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 관계에 있는 자신들을 인식하는 것이 제자들의 과제였습니다.

몇 시간 후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는데 제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막6:50)였습니다.

이 말씀에 쓰여진 헬라어는, “*λεγει αυτοις θαρσευετε εγω εμι μη φοβεισθε*”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을 만나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도피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세를 만나 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εγω εμι)**”(출3:14)가 제자들을 만나주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랑이는 물 위를 걷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난해서 미래의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복음병원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

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음병원은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찾는 숙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더 이상의 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참된 만족의 삶을 의미합니다. 참된 만족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외에 더 원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참된 만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병원이 바로 참된 만족으로 무장될 때 오늘날의 두려운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의식으로 새로운 복음병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레네우스가 쓴 ‘Against Heresies’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Gloria dei vivens homo*” 이것은 “*The glory of God is a living human being*”(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존재자체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경작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살아 있는’의 뜻을 “*vita autem hominis visio dei*”라고 했는데 “*The life of man consists in beholding God*”(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서의 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병원이 추구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복음병원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

혁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전 당뇨병은 무서운 질병이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진단 후 2주에서 한달 안에 사망하는 병이었다. 이 불치의 병을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인슐린의 발견이다.

인슐린은 프레데릭 밴팅 (Frederick G. Banting)이라는 젊은 외과의사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1920년 10월 31일 밤 자정께 불현듯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생리학 교실 주임교수인 존 맥클라우드(John J. R. Macleod)를 찾아가 실험을 할 것을 제안하고, 맥클라우드는 그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음 해인 1921년 맥클라우드는 밴팅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리학 및 생화학 코스 4학년 학부생 찰스 베스트(Charles Best)를 조수로 소개해준다.



이후 또 한 명의 연구자 제임스 콜립(James Collip)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1921년 5월에 시작된 밴팅의 실험은 12월에 드디어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다. 1922년 1월 레오나드 톰슨(Leonard Thompson)이라는 14세의 소년이 처음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고, 이 소년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 27세에 폐렴으로 사망할 때까지 생존했다.

이후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인슐린을 통해 죽음 앞에서 삶이 연장되는 기적을 누리게 된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당시 죽음을 눈 앞에 둔 빼만 양상한 어린이들이 인슐린 치료를 받은 후 한 두달 만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인슐린이 우리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인슐린의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밴팅과 베스트 콜립은 이 기술을 미국의 특허를 받은 후 토론토 대학에 1달러에 판매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위대한 발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쩌면 인슐린의 발견보다 이 부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한 위대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위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밴팅과 맥클라우드는 1923년 10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밴팅과 맥클라우드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다.

그 이유는 밴팅은 맥클라우드보다는 함께 실험하며 고생한 베스트와 콜립이 함께 노벨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노벨상 상금의 반을 베스트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노벨상을 주는 입장에서는 조수의 역할을 한 대학교 4학년 학생 베스트보다는 맥클라우드의 공이 더 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밴팅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베스트와 콜립을 소개해주었고, 실험실과 편당 및 여러 여건을 조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결과를 즉각 권위있는 생리학 학회에 소개해줌으로써 빠르고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밴팅의 업적과 생각은 모든 면에 있어서 혁신적이었다. 그 혁신을 통해 1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1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도 당시에는 발병 이후 3년에서 5년 이후 사망하는 병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관리만 잘하면 되는 만성질환이 되었다.

밴팅은 이 엄청난 발견을 단돈 1달러에 사회에 환원하고, 또 자신의 노벨상을 함께 고생한 동료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아, 기존 질서와 권위를 싫어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물론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도와준 맥클라우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혁신은 어떻게 하면 나 자신 뿐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기존 사회의 권위가 새로운 생각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진짜 혁신이었던지는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때 평가받는 것이 아닐까 한다. ✎

소아 아토피질환의 관리

 정민영 교수 · 소아청소년과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소아기에 발병하는 만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으로 호전과 악화를 오랜 기간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가 늘어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5년 92만 7032명에서 2018년 94만292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불리는 아토피피부염, 꾸준한 관심과 관리로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토피 피부염 증상, 자가검진, 예방법 등

아토피피부염은 가려움증이 주증상인 영유아의 만성피부질환입니다. 주변 자극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민감한 자극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고, 온도와 습도변화, 일교차가 큰 환절기마다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 부위를 계속 긁어 아이가 불편해한다면 아토피피부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토피피부염은 가려움증을 동반한 붉은 반점, 건조증이 특정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피부증상은 급성기와 만성기가 다른데 붉은 반점은 급성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토피피부염이 잘 생기는 부위는 연령별로 다른데요. 붉은 반점, 붉은 트러블의 정보만으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두드러기, 여드름, 접촉성 피부염, 습진 등의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 피부장벽이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알러지 성향, 즉 원래 염증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물질에 대해 이상반응이 생기는 성향이 있거나, 피부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의 이상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유전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어도 피부장벽이상이 있는 경우, 특히 아기들은 신체기관이 아직 미성숙하니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도 아토피피부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없어도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 환경적 요인인데요. 노출되는 미생물의 불균형,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실외대기오염, 흡연, VOC나 프탈레이트와 같은 실내공기오염물질, 애완동물, 꽃가루 노출, 서구화된 식습관 등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신생아, 영아기 등 어느 시기에 노출이 되면 발병하는지 일관되게 알려져있는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질환이 부, 모 모두 있는 경우는 40~45%, 한명만 있는 경우 22~31%, 없는 경우는 15%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보습방법 등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건 가려움증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은 피부염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화요인이 됩니다.

피부염증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먹는 약보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병변 부위에 바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습은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지만 염증을 치료하진 못합니다.

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면 병변이 더 악화되어 나중에는 강도 높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랜 기간 동안 발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신체진찰을 통해 환자의 연령과 중증도를 보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기 때문에 처방받은 대로 사용합니다.

가려움증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염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보습제는 피부건조를 해결해주고, 스테로이드 연고나 면역억제 연고는 염증세포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 분비를 억제해줍니다.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재발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아이에게 계속 발라도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게 되지요. 인터넷에는 사실 좋아진 경우보다 안 좋은 케이스들이 발견하기 쉽습니다. 염증이 아주 심한 피부질환은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 높은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털이 나거나, 색소침착, 피부가 얇아지고, 이차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성장지연, 백내장도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 막연한 스테로이드제 불안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증 아토피피부염을 제외한 경우, 특히 소아는 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치료도 잘 되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병변에 따라 스테로이드 연고가 아닌 면역억제제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약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치료가 어떤 것일지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유발 환경 및 완치 가능성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이 없었다면 며칠 가려운 증상으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피부염이나 두드러기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토피피부염이 맞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하자면, 아토피피부염 악화요인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하여 악화 요인을 확인하고, 이사한 환경에 알레르기 원인 항원이 더 많은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토피피부염 아이들은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어른이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가구가 있다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침구류 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옷도 순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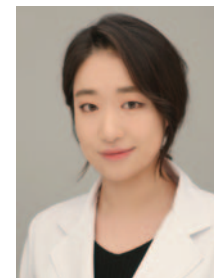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계속 악화된다면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진 않은지 확인합니다. 집 먼지진드기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잘 번식합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땀도 나고 가렵기 때문에 아토피피부염 증상 악화에 관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외부 자극에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흔한 질병입니다. 벽벽 긁고, 진물이나 아이도 괴롭고 보는 부모도 괴로운 아토피 피부염! 건조해지는 날씨와 환경오염으로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아토피를 가진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은 전문의와 함께 하는 아토피 치료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를 치료든, 교육이든, 양육이든 남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긴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해로운 걸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부터 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부모의 본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려움증의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힘들답니다. 막연한 약의 부작용이 두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려운 것이 익숙한 아이들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질환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의 책임을 살짝 넘기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정민영 교수 |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분야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 중환자의학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김봉준** 교수 · 심장내과



고혈압이란 동맥 혈관벽에 대한 혈액의 압력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압이 높아진 것을 고혈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고혈압 진단기준이 130/80 mmHg로 변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중국에서 발표한 'STEP 연구'에 따르면 고령의 환자에서도 적극적으로 혈압을 낮추었을 때, 주요 심혈관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적극적인 혈압 강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혈압은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고령, 식이습관, 약물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연관되어 발생한다. 고혈압은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지나다가 우연히 신체검사나 진찰 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심계항진, 피로감 등이 있으며, 과도한 혈압 상승에 의해 코피나 시력저하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혈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뇌혈관 질환이며, 특히 뇌졸중은 대부분이 고혈압과 연관되어 있다.

그 외에도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대동맥류 등 많은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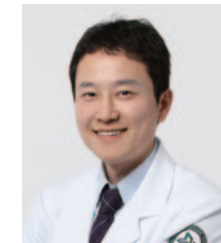
혈관계 질환들의 원인으로 고혈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있어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혈압을 1회 측정하여 진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처음 측정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1일 간격을 두고 최소한 두 번 더 측정하여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혈압 측정시에는 앉은 자세에서 5분 이상 안정 후 왼쪽 팔을 걷고 심장 높이에 두고 해야 하며 측정 전 30분 이내에 담배나 카페인 섭취는 피해야 한다. 혈압은 2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는데 두 번의 기록이 5mmHg 이상 차이가 나면 한 번 더 측정하도록 한다.

고혈압 전단계에서는 체중조절과 식사요법, 행동수정 및 규칙적인 운동 등의 비약물적 요법을 먼저 시행해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분 섭취량이 높아 식습관에서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반드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개개인의 혈압 정도에 따라, 그리고 동반된 기저 질환, 전신 상태에 맞게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봉준 교수 | 심장내과
전문진료분야
심부전 / 협심증 / 고혈압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월경 주기 따라 반복성향 구분 종괴 없다면 대부분 증상 호전, 유방통

 이희승 교수 · 유방외과



유방갑상선 클리닉을 하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유방통과 유방덩어리이다.

유방통은 기분 나쁘게 ‘찌릿찌릿’, ‘육신육신’ 전기가 흐르는 듯 콕콕 찌르는 통증을 유발하며 여성의 50~70%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대부분 양쪽 겨드랑이 부분이 불편하고, 한 쪽만 아픈 환자도 있다.

유방통은 주기적인 유방통과 비주기적인 유방통으로 나눌 수 있다. 주기적인 유방통(cyclic breast pain)은 통증이 월경 시작 며칠 전에 시작해 월경 때 심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아직까지 유방통의 원인과 치료는 정립되지 않았지만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중년 여성에게는 ‘자연스런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주기적인 유방통

전체 유방통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며 통증이 생리주기 내내 나타날 수도 있고, 폐경 전에 가장 심하기도 하며 폐경 후에 소실되기도 한다. 주기적인 유방통은 양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한쪽에 발생하는 경우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월경주기에 통증과 더불어 유방덩어리(breast lump)나 결절(nodule) 등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 종종 유방암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주기적인 유방통의 원인으로는 호르몬 분비 과다(에스트로겐, 프로락틴), 신경성, 카페인 과다 섭취(Tea, 커피, 초콜릿, 코코아, 콜라),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필수지방산 섭취 부족 등이 있으나 명확한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비주기적인 유방통

비주기적인 유방통(noncyclic breast pain)은 월경주기와 관계없는 불규칙한 통증을 말하며 대개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30대 여성에게서 주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50%의 환자에서 자연적으로 증세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으로는 유관확장증과 관주위유방염, 경화성 선증, 유방낭종, 여성호르몬제제의 금단 증상, 늑연골염 등이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하며 뚜렷하지 않다.

유방통의 치료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통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경우는 5% 이하로 유방통으로 방문한 환자가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는 드물다. 유방통의 치료는 상담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과 식생활 개선, 적절한 약물치료로 나뉜다.

물론 유방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 유방암이나 기타 유방질환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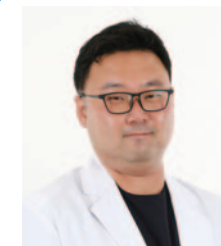
확실한 유방 종괴가 없는 유방통 환자의 85~90%는 검사를 통한 확인 및 의사의 설명만으로도 증상이 조절될 수 있다.

주기성 유방통은 커피와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과 고지방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호르몬 환경을 변화시키는 호르몬 치료제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비주기성 유방통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

약물요법으로는 비호르몬제제와 호르몬제제로 나눌 수 있다. 비호르몬제제로 대표적인 것은 감마리놀렌산(gamma linolenic acid)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달맞이꽃 종자유(evening primrose oil)가 있다.

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꾸준히 일정 기간(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젊은 여성이나 경구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호르몬제제로는 Danazol, Bromocriptine, Tamoxifen, LHRH analogue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유방 클리닉에서 유방 전문의와 상담을 거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희승 교수 | 유방외과
전문진료분야
유방암 / 유방양성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외래			외래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한 걸기

 이환호 교수 · 이비인후과

규칙적인 신체활동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와 미국심장협회(AHA)에 따르면 18~65세의 모든 건강한 성인은 주당 5일, 최소 30분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땀이 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을 하거나 주당 3일, 최소 20분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숨이 많이 차서 대화가 안되는 정도)이 필요하다고 권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성인은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수행하는 것이 좋다.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1.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적이다.

대사증후군은 혈중 지질이상, 혈당상승, 고혈압, 복부 비만을 특징으로 하며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증후군이다. 체중조절이 필수적이며 체중감량을 위해서 운동과 식단조절을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지방산화를 증가시켜야 한다.

2.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골격계에 내/외부적인 원인으로 통증과 기능 저하 등을 동반한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운동은 근골격계 질환 그 자체 또는 이를 치료하는 외과적 수술 후에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3.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한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할수록 치료가 어렵고 원 인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방이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을 할 경우 뇌를 포함한 전신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와 전두엽의 활성화도가 증가한다.

또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집중력과 순발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운동은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의 개선에 가장 중요한 비약물적인 치료법이다.

보행과 치매의 연관성

운동성 인지저하 위험 증후군(motoric cognitive risk syndrome, MCR 증후군)은 노인에서 치매나 이동능력에 장애는 없지만 주관적인 인지능력 저하와 보행속도 저하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치매증상으로 2013년 Verghese 등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다기관 연구 및 다국적 연구 결과에서 정상 인지 노인에서 신체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 혈관성 치매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치매 유병률도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에서 주관적인 인지저하를 호소하거나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모두에서 MCR 증후군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시간경과에 따라 치매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1.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종종 걸음을 걷는다. 2.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걷는다. 3. 실조증 처럼 걷는다.

비정상적인 보행패턴의 노인들이 정상적인 보행패턴의 노인들보다 치매확률이 1.96배 높았으며 특히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은 3.5배가 높다.

이는 기존에 다수의 종적 연구에서 인지저하와 신체기능저하가 동반되는 현상이라는 것과는 달리 신체기능 저하가 인지기능 저하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며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즉 기존에 정도의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신체적 사회적 요인이나 뇌영상검사상의 이상소견 뿐 아니라 MCR 증후군도 하나의 독립적인 전치매 징후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치매 예방을 위한 걷기 운동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로서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가능한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1만보 이상 걸으라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1만보가 하루 섭취한 열량을 모두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만보는 거리로 치면 약 6~7km에 달하고 걷는 데 1시간 넘게 걸린다. 운동 효과도 좋다.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병통치약이다.

걷기는 혈관을 강하게 만들고 걷기만 해도 치매가 개선된다. 일본의 걷기 전도사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유와카이 이사장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저자)는 “걸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나이가 들어 무릎이 쭉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으며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고 말했다.

나가오 박사는 ‘걷기만 해도 치매는 개선된다’는 책에서도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이며 치매를 비롯해 우울증, 수면장애,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걷지 않으면 근육과 뼈가 급격히 쇠퇴하고 뇌 자극이 극단적으로 줄어 치매와 관련된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나가오 박사의 주장이다.

빠르게 걸으면 산소 소비량이나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골격근과 혈관에 적당한 부하가 가해져 여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걷기는 올바른 자세로 파워워킹을 해야 한다. 많은 걸음걸이(보행 수)보다 보폭을 넓혀 빨리 걸어야 운동 효과가 크다. 걸을 때는 먼 곳을 바라보듯이 고개를 곧게 세우고 걷는다. 보폭이 넓어지면 전신을 이동시키는 힘이 세져 운동량이 증가한다. 보폭을 넓히는 올바른 방법은 고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앞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환호 교수 | 이비인후과

전문진료분야

이과 질환 / 만성중이염 / 삼출성 중이염 / 어지럼증 / 이명 / 난청 / 인공와우 이식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아토피 피부염



1. 보습 및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합니다.
- 약산성 물비누를 사용하여 매일 목욕하고 때를 밀면 안됩니다.
- 보습제는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목욕 직후 바릅니다.
- 피부에 자극이 없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손톱, 발톱을 짧게 깎도록 합니다.

2. 정확히 알레르기로 진단된 식품만을 제한합니다.

3.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4.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5.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 합니다.

1. 실내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2. 천식의 원인 및 악화요인을 검사로 확인한 후 회피합니다.

3. 금연하고,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합니다.

4. 감기 예방을 위하여 손을 잘 씻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합니다.

5.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합니다.

6. 천식 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악화 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7.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합니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1. 실내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2. 비염의 원인 및 악화 요인을 검사로 확인한 후 회피합니다.

3. 금연하고,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합니다.

4. 감기예방을 위하여 손을 잘 씻습니다.

5.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 합니다.

푸른 축제

 김희자·수필가



마을을 품은 설악산과 응봉산에 구름이 오고 간다. 응봉산 끝자락에 잇닿은 매봉산 꼭대기는 구름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낮게 내려앉은 하늘에선 금방이라도 빗줄기를 뿌릴 듯하다.

회색빛 하늘과 싱그러운 오월의 산야가 대조를 이루며 골짜기에서 산바람이 불어온다. 마을 앞에는 대양으로 나가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산을 깎아 터를 잡은 사람들이 비탈에 기대어 생을 이어간다.

음지 다랑논에 오랜만에 모를 심는다. 물꼬 틀기가 여의치 않아 한동안 벼농사를 짓지 않았던 논이다. 논바닥이 작아 기계보다는 사람 손에 의존하는 땅이다. 벼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는 터이니 유채와 코스모스를 심어 두고 보면서 즐겼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마을을 모아 문화재로 지정된 다랑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기로 했다. 일할 환경이 열악해도 터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들은 마을의 희망이요, 지킴이다.

이장님은 모내기엔 동참하라며 며칠 전부터 방송했다. 청년·부녀회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들로 나갔다. 청년회, 부녀회라 해봐야 대부분이 오륙십 대 중년층이다.

이양기가 들어갈 수 있는 논에는 기계로 모를 심고, 손바닥만한 다랑논에는 부녀회원이 손으로 모를 심기로 했다. 대부분 발품을 팔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여서 일손이 귀하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부부가 오십 대, 사십 대 말이다.

이곳에서는 다랑논을 달갱이, 다랭이논이라 부른다. 마을을 끼고 재와 골 9부 능선까지 다랭이논이 등고선처럼 자릴 잡고 있다. 무지개 재로 가는 하늘배미도 오래전부터 목정논이 되었다. 쌀이 흔해진 탓도 있었지만 마을과 먼 땅, 손이 갈 수 없는 일부 논은 언제부터인가 터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모내기 며칠 전부터 마을 청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논에서 이른 아침부터 예초기 소리가 들려왔다. 오월인데도 날은 무더워 작업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

드디어 모내기철. 마을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모를 심어도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나락이 누렇게 익을 때까지 물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해서였다.

며칠 전 비가 제법 내렸지만 가파른 개울을 타고 귀한 물이 바다로 흘러가 버렸다. 물꼬를 대기 어려운 논에는 양수기를 이용하여 논바닥을 적셨다. 예전부터 자연에만 의존했던 천수답이라 모내기가 시작되면 물이 귀했다.

마을 양쪽에 개울이 있어 가천加川이라 이름 지었지만 모내기가 시작되면 물은 황금보다 소중했다. 봄 기쁨이 이어지면 농부들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 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선조들의 지혜로 만든 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원리로도 해석할 수 없는 수문이 골마다 있어 각 눈에 물을 댈 수 있었다. 해무 또한 한몫했다. 바다에서 오른 안개를 나무와 풀이 흡수하여 개울로 내보냈다. 곳곳에 박힌 돌이 물을 머금은 성질이 있고, 논바닥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가물어도 논이 마르진 않았다.

쌀 한 톨이 귀했던 시절, 모내기가 시작되는 초하의 풍경은 한마디로 푸른 축제였다. 썰레질해 놓은 눈에 물이 찰방찰방 일렁이고, 햇살이 논바닥에 내려와 사금파리처럼 부서졌다. 먼 바다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층층 논둑으로 기어오르면 마을 사람들의 손길은 팔랑개비처럼 분주해졌다.

쟁기질로 눈을 갈아엎어 모를 심었다. 제법 큰 논배미에서는 몇 마리의 소가 줄을 지어 쓰레질했다. 물 위를 질주하는 소와 “이라, 이라!” 하며 나아가는 농부의 함성은 산자락에 메아리쳤다. 소와 사람이 하나 된 모습을 보노라면 절로 탄성이 나왔다.

논배미 이름도 생김 대로였다. 샷갓배미, 하늘배미, 엉덩이배미, 장구배미, 천상배미….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108개의 논은 대부분이 다랑이다. 절벽을 개간하여 논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공중배미, 높은 지형을 개간하여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하늘배미, 하늘만 보며 기우祈雨하는 천상배미, 벗어놓은 샷갓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샷갓배미.

이 모든 논은 소와 사람 손으로 경작했다. 큰 논배미가 아니면 못줄도 필요 없었다. 맨발로 이논, 저 논을 휘젓고 다니며 눈대중으로 줄을 맞춰 모를 심었다. 논두렁은 비틀어져도 모내기는 바로 했고 맨땅에 절하듯 허리 숙여 모를 심었다.

모내기가 시작되면 엄마의 손은 더욱 바빠졌다. 옷골 눈에 모를 심는 날이면 별미를 준비했다. 새벽에 일어나 오곡밥을 짓고 찬도 여느 때와는 달랐다. 아껴서 모아둔 계란을 풀어 가마솥에 찌고 해물을 잔뜩 넣어 정구지 부침개도 부쳤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준비해놓은 음식을 광주리에 담아 이고 옷골로 갔다. 길은 좁고 울퉁불퉁. 발끝에 차이는 돌이 많아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내 살과 뼈는 여물었다.

논둑에는 초록 풀냄새가 일렁거렸다. 송홧가루 묻은 빠꾸기 소리가 실바람에 실려 천수답으로 내려앉곤 했다. 산바람을 맞으며 찰밥을 먹노라면 수라상도 부럽지 않았다.

밥과 찬을 한 입 가득 넣고 올라다 본 오월의 하늘은 더없이 파랬다. 그때 먹었던 성찬은 지금도 남아서 잊히지 않는 것 중의 하나다

못줄 없이 심겨진 모였지만 비뚤비뚤한 내 마음보다 밟았다. 물에 불어터진 부모님의 발은 허영게 변했고 구릿빛 얼굴은 더 주름져 보였다. 봄별에 탄 얼굴 너머로 가을이 보였다.

결실을 기다리는 얼굴에는 설렘이 논바닥에 찰랑대는 물처럼 넘쳐났다. 막걸리 한 사발을 새끼손가락으로 휘익 저어 들이키며 흘리던 아버지의 미소는 가난도 아프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듯했다.

큰 눈에 모내기할 때는 품앗이했다. 동네 아낙들이 바짓가랑이를 걷어붙이고 손을 나누었다. 모내기는 굵은 등작과 허영게 부르튼 맨발과 갈퀴 손가락으로 행해졌다.

축제는 모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람과 생명, 자연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잔치였다. 땅 한 뼘이라도 귀한 이곳에서는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였다.

심어 놓은 모는 저 혼자 자라지 않았다. 넉넉한 햇살과 물과 흙이 주는 영양분으로 성장했다. 자연의 선물을 받으며 모는 자리를 잡고 여물어 갔다. 올챙이, 우렁이, 소금쟁이가 찾아와 친구가 되었다.

장마와 태풍을 이겨내고 알곡을 맺었다. 자연이 주는 선물과 농부가 쏟은 땀방울로 얻은 쌀 한 톨, 한 톨은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양식이었다.

타향에 살아도 모내기철만 되면 고향 사진을 펼쳤다. 모내기 풍경이 눈앞에서 가물대고, 설흘산에 걸린 구름 한 점이 어서 오라며 손짓하는 듯했다. 그럴 때는 나도 영혼의 터에 모내기했다.

가을이면 여무는 벼처럼 내 영혼이 무르익길 바라며 문장을 심었다. 그러던 내가 고향에 들어와 살게 될 줄이야. 기억은 꿈을 만들고 우연은 희망이 된다는 말이 있더니 나에게 꿈은 그런 거였다.

도시로 나갔다가 스물세 살에 고향으로 돌아온 주성 오빠는 이양기로 큰 배미에 모를 심고 있다. 다랑논 전부에 모를 심는 게 꿈이었다며 싱글병글하신다. 작은 논배미에는 부녀회원들이 손으로 모를 심고 있다. 느린 듯해도 손이 무섭다. 그 틈에 낀 나는 카메라를 들고 논두렁을 뛰어다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터를 지키겠다는 사람들. 그들을 보노라면 아름답다 못해 애뜻하다. 터를 지킨다는 의미는 존재가치를 뜻하는 말이며, 터는 마음의 의지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흐린 하늘에서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모내기는 원래 비 오는 날에 하는 거라며 시집와 여태 살고 계신 두순 숙모가 말을 잇는다. 비가 그치며 해님이 얼굴을 내민다.

이장 사모님이 새참을 머리에 이고 엉덩이를 흔들며 왔다. 모두 일손을 멈추고 논 가로 나왔다. 일곱 색깔 고명으로 말은 잔치국수의 맛이 일품이다. 논가에 앉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빚은 유자막걸리 사발을 들고 건배를 외친다.

비가 그친 대지에 햇살이 내리고 매봉산에 머물던 구름도 사라졌다. 누군가가 시작한 노래 한 소절이 노동요처럼 이어진다. 응봉산에서 산비둘기 구구 울고 빠꾸기가 합창하며 축제 분위기를 북돋운다. 푸른 축제가 열린 들녘에 짙레꽃향이 은은하게 번진다. 

첫사랑의 기억처럼... 밀양 백운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산 이름 중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백운산일 것이다. 광양 백운산, 함양 백운산, 정선 백운산 등등 대강 떠올려도 생각나는 산들이 즐비하다. 그런 백운산이 가까운 영남알프스의 자락에도 있다.

밀양 산내면에 위치한 백운산(해발 885m)이다. 그동안 영남알프스 9산의 인기에 묻히고, 신불산 공룡능선의 명성에 가려있던 산이다. 바로 산 아래의 얼음골과 호박소가 워낙 유명해 더 뒷전으로 밀려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얼음골에서 천황산으로 오르는 케이블카를 통해서 백호바위로 알려지면서 조금씩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너편 산에서 바라보면 정말 땅을 힘차게 박차고 달려 나가는 백호의 모습을 닮았다.

백운산은 영남알프스 최고봉인 가지산과 맞닿아 있으며, 산 전체가 한 조각의 흰 구름처럼 보이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백운이라 불리도 좋고 백호라 불리도 좋은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품은 산. 그 아찔하고 위험천만의 기암괴석의 바윗길을 걷노라면, 길을 걷다 우연히 옛사랑을 만난 느낌.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문득 떠올리게 하는……, 백운산은 그런 길을 품은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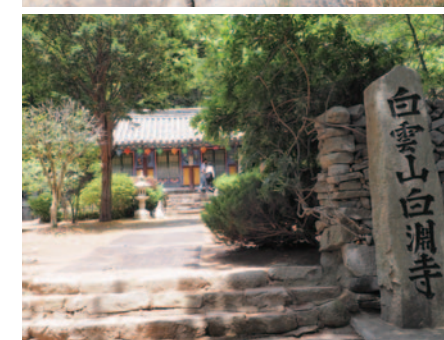
얼음골과 시레호박소

백운산은 얼음골과 호박소, 구룡폭포, 오천평반석이 있는 쇠점골 등을 품고 있어 여름산행에 더 제격이 아닌가 싶다.

밀양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석남사행 버스가 얼음골 정류장에 내려주고 돌아나간다. 이정표 호박소 1.6km의 도로를 따라 걸으며 산행이 시작된다. 머리 위로 천황산 하늘정원 전망대로 오르는 케이블카가 지나간다. 땀별을 한참을 걸어서 호박소에 도착한다.

이른 시간임에도 때 이른 더위를 피해 온 사람들이 계곡 옆 평상에 앉아 동동주 냉채를 푹푹 풍기고 있다. 나무그늘과 계곡의 물소리가 이마와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 토닥토닥 닦아주는 느낌이다.

긴 기쁨에도 호박소의 물 흐르는 소리는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하기가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갈 만큼 깊었다는 호박소이니 오죽할까마는…….

산으로 오르는 길을 찾기가 자칫 애매할 수 있다. (블로그나 인터넷의 산행기에는 주로 제일농원 어찌고저찌고 하는 말이 많이 있으나 그 어디에도 제일농원이라는 표시는 보이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호박소 매점과 백연사 담벼락 사이에 표지기가 많이 매달린 편백나무 두 그루 옆 평상 뒤로 올라야 한다. 그러면 잠시 대나무 숲을 지나고, 그냥 보기에도 숨이 차오르는 오르막이 나타난다.

시작부터 <아, 장난 아니네.> 싶지만 아직 시작이 아니다. 장난 아닌 오르막을 한참을 오르면 석남터널로 가는 옛 도로에 도착한다. 도로 건너편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망 사이로 초록의 수풀과 대비되는 주황색 밧줄이 보인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한 셈이다.

백호의 꼬리를 붙들고

유난히 사랑고백의 낙서가 많이 적힌 콘크리트 담벼락을 넘어 밧줄을 붙잡고 오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너털의 오르막이 이어진다. 아마도 백호의 뒷발 뒤꿈치 쯤 되지 않을까.

끝날 것 같지 않던 돌투성이의 오르막길은 돌담 군락을 지나고서도 한참을 더 오른 후에야 비로소 끝난다. 백운산



1.05km 삼양마을 0.4km 첫 이정표가 보이고, 나무에 가려졌던 조망도 조금 트여 건너편 천황산의 능선을 보여주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채질을 해준다.

크게 한숨을 돌리고 일어서면 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웃으며 손짓을 한다. 거대하고 울퉁불퉁한 바윗길이 시작된다. 그 위용이 참 의미심장한 웃음 띤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따라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아마도 달려가는 백호의 꼬리썸 될까? 간덩이가 부은 사람처럼 감히 백호의 꼬리를 붙잡고 올라야 하는 길이다. 그 정도의 배짱을 가져야하겠지만, 그러나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백호가 꼬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약간의 힘을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고소공포증만 없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길이다.

때로는 밧줄을 잡고, 때로는 바위 턱을 붙들고, 때로는 경사진 계단을 올라 가다보면 아찔함이 승화되어 가없는 즐거움이 되는 호랑이 타고 오르기. 이제 조망은 완전히 트여 영남알프스의 능선과 봉우리들이 즐비하게 보이고, 바람도 쉽없이 불어줘 시원하다. 참 좋다는 말 밖에 더 할 말이 없다.

잠시 바위 위에 걸터앉아 쉬는 틈에 사람소리가 들려 둘러보니 그곳엔 간덩이가 붓다 못해 배밖에 나온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 혼련 중인 산악인들이 백호의 배를 타고 등을



향해 오르는 중이다. 그 풍경이 바람에 실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게 한다. 어찌면 백운을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럴까?

백운산 정상은 백호의 등줄기를 타고 가다 어깻죽지에 다다를 즈음 비껴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돌무더기에 뿌리를 내리고 마치 염화미소를 띤 듯 서있는 장승을 만나면 곧 정상이다. 산 아래의 풍경은 더욱 아찔하여 눈이 시릴 정도이고, 가지산이 눈앞까지 성큼 다가와 있어 반가움에 가슴까지 뭉클해진다.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계단을 몇 개 지나고, 아주 미끄러운 흙길을 길게 지나면 무난한 능선으로 이어진다. 전혀 또 다른 모습의 길이라서, 그래서 아주 많이 아쉬움과 미련이 발치에 차이는 길이다. 그래서 더 자주 뒤돌아보게 된다.

가마득히 잊고 살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첫사랑의 기억처럼 조금 전 걸어왔던 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가지산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유난히 폭신한 산죽 길을 지나고 몇 개의 계곡을 건너면 용수골에서 이어진 구룡폭포를 만나고, 더 내려오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주차장 휴게소를 거쳐 다시 석남터널로 가는 옛 도로에 도착한다. 도로를 따라 잠시 내려가면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 백운산행은 끝이 난다.

밀양버스터미널에서 얼음골을 거쳐 석남사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내버스도 있다. 산을 내려온 후에도 얼음골 정류장에서 밀양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된다. 혹시 시간이 맞지 않다면 석남사로 가 언양에서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밀양에서 얼음골까지 버스요금은 4,600원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거나,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밀양으로 가면 된다. 



찾아가는 길

밀양버스터미널에서 얼음골을 거쳐 석남사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내버스도 있다. 산을 내려온 후에도 얼음골 정류장에서 밀양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된다. 혹시 시간이 맞지 않다면 석남사로 가 언양에서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밀양에서 얼음골까지 버스요금은 4,600원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거나,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밀양으로 가면 된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박은총

얼마 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전의 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따라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참석한 예배의 분위기에 휩쓸려 감성적인 감동을 느끼기만 한 '모태신앙자'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련에 무너질 때도 많았고, 삶 가운데 느끼는 공허함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채우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손가락, 발가락이 부러지면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공허하고 건조한 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방황하는 저에게 주님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고 공동체와 예배로 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때마침 교회 수련회가 다가왔고, 하나님께서는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일과 수련회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수련회를 향한 사모함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존재이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을 잊혀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기독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모습들이 이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종교생활이었고,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날, 기도시간에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제 자신과 인생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끝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마음속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들었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일상을 채우니, 순간의 은혜로 머물렀던 말씀이 더 확실히 다가오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보니 하나님께서는 직장과 결혼으로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며 살다보니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 자신의 계획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세웠던 계획들은 하나둘씩 무너졌고 점점 불안이 늘어나면서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 어릴 때부터 함께 교회에서 자라온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어 함께 예배를 드렸고 성령 충만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가 잊고 있었던 부

분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함은 기적과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자유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였고 팔복 중 하나였던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5:3

말씀을 듣고 난 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 이후에는 다시 마음과 입에서 감사함이 회복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현실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나를 위해 고심하여 주신 것이 은혜라면, 제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주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9-10

매순간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이 저를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 · 기독교보

의술이 환자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마저 헤아리는 의사



김명국 교수 · 신경과

뇌는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기능이 있어 손상되면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장애를 동반할 수 있어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김명국 교수는 신경과 교수로 그의 전문 분야는 두통과 어지럼증, 뇌졸중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신경과 의사라면 거의 다 진료하고, 전문 분야는 뇌졸중이에요. 조금 더 상세하게 뇌졸중을 설명한다면,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것으로 신경과에서 진료 하고 뇌출혈은 신경외과 파트로 혈관이 터져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리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모두 위험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뇌출혈과 뇌경색 비율은 7:3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더 치명적인 건 뇌출혈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혈압 관리를 하다 보니 뇌경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뇌출혈 같은 경우 40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뇌경색증도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더 나타나는데, 혈관이 막히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1년 된 것과 10년 된 걸 비교해 보면 오래 사용된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뇌경색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뇌졸중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무엇보다 후유증이 심각한 편입니다. 사지 마비나 언어 장애, 성격 변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도록 평소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뇌경색증 관리는 예방이거든요. 1차 예방은 뇌경색증이 한 번도

안 온 사람에게 안 오게 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뇌경색증이 있었지만,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관리해 뇌졸중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김명국 교수가 특별히 기억하는 환자는 바로 ‘좋아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특별하다기보다 의사라면 늘 겪는 경우가 아니냐고 할 수 있죠.

“응급실에 실려 올 때만 해도 몸 한쪽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도 못 하던 사람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도착했고 혈전 용해 치료를 통해 막힌 혈관을 처치함으로 증상이 좋아져서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걸어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경우는 몇 년 동안 만성 두통에 계속 시달리던 환자들이 진통제만 계속해서 복용했는데, 약물치료를 통해 진통제 없이 좋아지게 만든 것이죠. 아마도 그 환자분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당시 김 교수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골든타임이라 말하는 시간 안에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치를 해야만 하니까요.

고신대복음병원 신경과는 진료의 질적 적정성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부산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조사된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의 평가를 받아 그 수준을 입증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응급질환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뇌질환



센터로 지정돼 지원을 받았고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려면 기도하시라고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에게는 혹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교회에 나가보시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출석하는 교회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죠.”

이런 김명국 교수가 생각하는 명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의사들이 모두 치료는 하잖아요. 당연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치료를 잘하는 게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은 기본이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알아 마음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진정한 명의가 아닐까 싶어요.”

“병원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바쁘니까 환자들한테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타성에 빠지는데 환자들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머리 MRI를 찍었으며 그 환자는 결과가 정상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환자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해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의 불안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뛰어난 의술이겠지만 그 의술을 환자의 마음에 닿도록 이해시킬 때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환우기고글]



봄 기운을 충분히 맞으며 반갑게 낮 병동 교무실에 들어서면, 나보다 더 반갑게 웃어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덕분에 나는 오늘도 ‘아아, 나를 반기는 곳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무실 바로 옆에 있는 교실(낮병동)으로 들어선다.

이제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진 회원님들과 인사를 간단히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일을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침마다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우리끼리 우리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파일을 챙기고 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나는 처음에 갈 데가 없어서 낮병동을 찾았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고, 나도 그 어디에도 편안하지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곳이 낮병동이였다.

나는 처음에 불안정했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그동안 참아왔다고 항변하듯 붉은 눈물 방울이 볼을 타고 설새없이 흘렀다. 처음에는 많이 아프고 슬펐다.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시작되어 낮병동에 규칙적으로 다니기 시작하였다.

위태로운 모래알 위에 튼튼한 성이 세워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낮병동에는 처음부터 탄탄하게

우리를 모든 방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재발 방지 클리닉 교수님이 계신다.

다른 모든 선생님들 또한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하고 우리의 말에 귀기울여 주신다. 내 방에는 책박에 없었다. 그런 내 방에 낮병동에서 진행한 공예프로그램과 원예프로그램에서 만든 작품들은 내 방에 활기와 내 방임을 증명하듯 꾸며져 있게 되었다.

낮병동 프로그램에서 특히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노래요법이다. 나는 노래부르는 게 정말 좋다. 왜냐하면 가슴 뻥 뚫리는 듯 노래를 부르면 내가 웃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 요법에서는 미술활동을 하면서 또 상담을 한다. 또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지지요법이다. 나는 아무리 기분이나 신체적으로 아프다고 해도 낮병동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꼭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힘겨워도 발걸음을 나선다.

그러면 그런 나의 노력에 보답해주시듯 낮병동 의사선생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물어봐주시고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게 유도해주신다. 우리 낮병동에는 이렇게 우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두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집단임상심리치료 시간이다. 임상심리사 선생님 3분이서 차례를 번갈아가면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1주일을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인지 못 했던 감정들을 끌어올려서 토로하고 털어놓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다. 나는 실제로 집단 임상심리 치료 시간에 제일 많이 울었다.

언젠가는 우리는 졸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낮병동에서. 우리는 졸업하기 위해 미리 사회생활을 준비하듯이 대인관계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항상 프로그램을 회원님들 주도로 학생 의사 선생님들, 간호 실습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보조에 맞춰서 함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연결시킨다.

나는 사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회원님들을 포함한 나를 위해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오신 것들을 보면 너무 고맙다. 물론 이 마음은 낮병원 의료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즉, 낮병동이란 우리가 귀결되는 도착점이 아니라,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낮병동인 것이다. 나는 언젠가 낮병동에서 졸업할 때에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다.

“선생님,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졸업을 하더라도 1달에 한 두 번이라도 꼭 낮병동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발 방지 수업을 듣고, 1달 동안 쌓인 나의 감정과 심리를 말해주고 싶고, 무엇보다 낮병동은 나에게 참 고마운 보금자리이니까. 내일도 나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등원하여 낮병동에 참여하러 간다. 



칭찬합니다

To. 509병동 이가은 간호사님

친절한 응대,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믿음직하고 보기 좋습니다. 응원해요.

- 정○○ 님

509병동 전주영 간호사님,
입원 전과 시술 후 긴장한 환자와 보
호자에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환자 편에서 도
움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했
습니다.

- 정○○ 님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떨어져 같은
질문은 대여섯번 했어요.. 바빠도 답
답할 환자 마음 헤아려 잘 설명주시
는 이비인후과 외래 선생님들께 감
사드립니다.

- 박○○ 님

505병동 배수연·김민지 선생님께
다정다감하신 선생님, 가족같은 편
안함에 위로받고 병이 다 낫는 것 같
았습니다.
여러번 반복되는 질문에 시종일
관 성실히 대답주시는 모습에 감사
드립니다.

- 윤○○ 님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환자에게 진심인 503병동.
특히 열정 가득한 윤다니 선생님을
친절 간호사로 추천합니다. 응원해
요!

- 박○○ 님

To. 503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께

늘 바빠 뛰어다니면서도 도움을 청하
는 환자에 항상 친절하고 기분 좋게 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환자 보호자

To. 분만실 선생님들께

긴 3개월 입원기간은 인생을 통틀
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간호사님들의 정성어린 간호
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감
사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는 외국인
아내를 대신해 글을 남겨요.

- 세○○○○ 환자 보호자

환자에게 정성껏 친절을 다하
시는 신경외과 심용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 류○○ 환자 보호자

이제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지만,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수아,
고성현 전공의 선생님께 감사드
립니다.

- 故김○○ 환자 보호자

명쾌하게 설명주시는 신경외과 박
정현 교수님,
어려운 치료과정을 환자의 눈높이
에 맞춰
자세하게 설명주시는 모습에 감명
받았습니다.
신뢰가 갑니다.

- 윤○○ 님

먼 길을 힘들게 방문하는 외래지만,
방문마다 친절하고 성실한 간내과
김정미 선생님 모습에 즐거운 마음
이 들고, 작은 행복을 얻습니다. 힘내
세요!

- 김○○ 님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딸처럼 챙겨
주시는 506병동 간호사선생님들..
그 모습에 감동과 힘을 얻습니다. 최
고예요!!

- 권○○ 환자 보호자

원무부 김정환 선생님!
보호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
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환자 보호자



먹다 듣다 걷다

이아령 저 | 두란노 |
2022.03.23.

책소개

“교회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존과 소통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듣는다! ‘기독교가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대사회적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는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다.

우리 시대의 스승 이어령은 자성에서 영성으로 발을 디딘 후, 성경적 기초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회 안팎에서 깊은 해안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기독교의 대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저자는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되짚어보기 위해 세 가지를 주목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익숙한 교회를 향해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건”임을 언급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동성”으로서의 기독교 정체성을 세 가지 동사로 제시한다. ‘먹다 듣다 걷다’ 세 주제는 결국, 현대교회가 비껴갈 수 없는 현대인의 트렌드와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교회와 성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경적 역할을 하는 방식과 방향성을 짚어 나간다.

특히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하되, 저자의 풍부한 식견과 통찰로 겸손한 제안을 아끼지 않는다. 교회의 문제나 불충분한 자기 역할을 비판하기보다 달라져야 하고 시도해야 하는 영역을 다루는 것이 기존의 교회 역할론과 확실한 차이점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 우리를 배불리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며, “물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제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다”고 기준점을 제시한 저자는 “진정한 복지는 감사기도에서 시작”이라고 설명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통하며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나눔과 구제, 대사회적 정체성을 두고 고민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반드시 자문해야 할 대명제를 “이삭 줍는 사람들” “만중”과 같은 다양한 명화와 인문학적 통찰을 곁들여 하나씩 풀어놓는다. 고인이 된 저자가 마지막까지 씨름하다가 떠난 이 질문과 답을 통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길을 모색하는 한국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출처: 인터넷교보문고]

저자소개 | 이어령

19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문리대학보》의 창간을 주도 ‘이상론’으로 문단의 주목을 끌었으며, 《한국일보》에 당시 문단의 거장들을 비판하는 「우상의 파괴」를 발표, 새로운 ‘개성의 탄생’을 알렸다.

20대부터 《서울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의 논설위원을 두루 맡으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논객으로 활약했다. 《새벽》 주간으로 최인훈의 ‘광장’ 전작을 게재했고, 월간 《문학사상》의 주간을 맡아 ‘문학의 상상력’과 ‘문화의 신비함’을 역설했다. 1966년 이화여자대학교 강단에 선 후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폐회식 총괄 기획자로 ‘벽을 넘어서’라는 슬로건과 ‘굴렁쇠 소년’ ‘천지인’ 등의 행사로 전 세계에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을 각인시켰다. 1990년 초대 문화부장관으로 취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과 국립국어원 발족의 굳건한 터를 닦았다.

마르지 않는 지적 호기심과 창조적 상상력, 섬 없는 말과 글의 노동으로 분열과 이분법의 낡은 벽을 넘어 통합의 문화와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끝없이 열어 보인 ‘시대의 지성’ 이어령은 2022년 2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출처: 인터넷교보문고]

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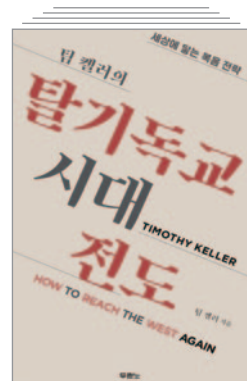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저자가 던지는 화두는 간명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닿을 수 있을 것인가.’ 이토록 짧지만 긴급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교회사를 되짚어 보는 데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현시대를 복음으로 분석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그렇기에 여기서 소개하는 통찰은 단지 과거를 운운하는 교훈조의 충고가 아니라 오늘의 현장을 꿰뚫는 적실성 있는 조언으로 다가온다. 이 책은 바로 그 복음 전략을 나누는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는 안내서다. [출처: 예스24]

저자소개 | 팀 켈러 Timothy J. Keller

맨해튼을 비롯해 미국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더교회인 웨스트민스터의 설립 목사. 팀 켈러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 준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도자와 회의론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팀 켈러는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지고 집약되는 ‘도시 지역’ 선교에 헌신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 430개 교회의 개척을 도왔다. 2017년부터는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들의 도시 전도와 사역을 돕는 단체인 CTC(City to City)에서 섬기고 있다.

팬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버크넬대학교, 고든콘웰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수학했다. 1984년부터는 5년간 모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강단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출처: 예스24]



팀 켈러의 탈기독교시대 전도

팀 켈러 (티머시 켈러) 저 /
장성우 역 | 두란노 |
2022.04.20.



Focus View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 선포식’ 개최, 환자중심, 미래지향의 혁신과 자기주도, 선한병원 추구



고신대병원원은 3월 7일 1동 3층 예배실에서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오미크론 확산세 및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김영대 원목실장의 기도와 최중순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 오경승 병원장의 기념사와 사명, 비전, 핵심가치 선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중심의 치료, 전도, 교육을 실천하여 모든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다”는 사명과 “환자중심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병원, 존경받는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병원, 최고의 구제 병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혁신과 자기주도, 회복과 미래지향, 소통과 상호신뢰, 사랑과 선한병원”이라는 4가지의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비전과 핵심가치를 전교직원들이 가슴에 잘 새기고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로 보답하자”고 강조했다.

[2022.03.07.]

고신대복음병원, 동아ST, 메쥔와 3월 17일 협약 통해 심전도 연구와 심장의 디지털 데이터 축적 본격 시작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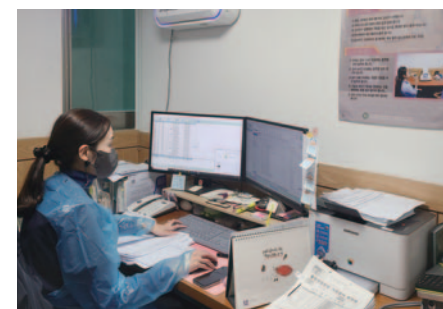


고신대병원이 3월 17일 (주)메쥔, 동아에스티(주)와 ‘심장진단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신대병원은 지난해부터 국비심중사업으로 고령 1인가구 및 지역 내 복지관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고신카디텔레메트리센터(가칭)’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메쥔은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개발사로, 웨어러블 패치와 스마트 폰을 활용해 실시간 다중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동아에스티는 메쥔과 전문의약품, 의료기기·진단 사업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 메쥔의 ‘하이카디플러스’는 모니터링 모드에서 연속적으로 심전도, 호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록 할 수 있으며 부정맥 실시간 검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급변하는 환자 상태로 파악이 가능하다. 오경승 병원장은 “심장 검사의 일종인 홀터검사가 패치형으로 제공되고 고신대진단센터와 협력 의료기관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의 추가적인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022.03.18.]

고용노동부 직업병안심센터 선정

- 부울경 직업병안심센터 운영으로 산업체 건강 지킴이 역할 기대



고신대병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산울산권역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대한 질병재해 발생 시 현장 조사, 시료 확보·분석 등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지원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직업성 질병 24개에 대해서는 상시보고체계를 갖추고, 뇌심혈관질환 사망 등 질병조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적 자문 제공도 하게 된다. 고신대병원 직업병 안심센터는 지역내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임상 진료과 등과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직업병 안심센터’를 전담할 고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검진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건강보험공단 지정 일반검진기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2022.03.21.]

Focu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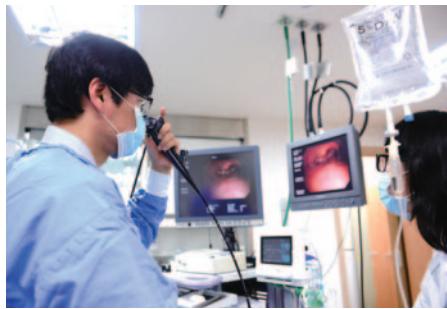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웰니스 센터, 입주민 대상 건강교실 개최



고신대병원 3월 22일 오후 3시 스마트빌리지웰니스센터 메이커스페이스에서 EDC 스마트빌리지 웰니스센터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2022 스마트건강교실'을 개최했다.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가 '코로나 19와 환절기 건강관리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질의응답에 참여하여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이 됐다. 이날 건강교실에 참여한 60대 입주자 A모씨는 "스마트빌리지에 입주한 이후 꾸준히 건강정보를 모니터링 받을 수 있었고 유용한 건강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건강교실은 분기마다 1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스마트빌리지 웰니스사업은 한시적으로 의료규제가 면제되어 민간에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협진과 입주민들이 제공하는 생활속에서의 건강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2022.03.23.]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선정



고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고신대병원은 평가결과 1등급 기준인 80점 이상을 상회하는 85.2점을 기록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평균(69점)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간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진료한 6,44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평가 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해로운 입자나 가스, 담배연기 등의 흡입으로 인해 기도에 염증이 생겨 서서히 좁아지는 것을 말하며, 숨을 들이마실 공간이 부족해져 기침·가래·호흡곤란·폐기능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조산소근로자들에게서 자주 발병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오경승 병원장은 "봄철이 다가오면서 어느 때보다 미세먼지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시기"라며 "최선의 의료를 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환자안전 리더십 라운딩’ 시행



고신대병원은 3월 31일 오전 환자중심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원내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2년 1차 '환자안전 리더십 라운딩'을 시행했다. QPS(Quality Patient Safety)실에서 주관한 환자안전 라운딩 행사는 오경승 병원장을 비롯해 이운형 QPS실장, 간호부 과·부장 등 병원 리더로 구성된 위원들이 함께 병원을 순회하며 정확한 환자확인 및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주제로 입원 병동 및 중환자실을 중점 점검했다. 환자안전 라운딩 부대행사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확인 및 구두처방 절차에 대한 퀴즈풀이를 진행해 정답을 맞히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환자안전 리더십 라운딩을 통해 환자안전 의식을 높이고 진료과정 뿐만 아니라 시설과 환경영역에서의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환자안전 활동이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 중심의 병원 문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3.31.]

Focus View



식품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고신대병원은 4월 8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 아토피 파천식 교육정보센터 등 2개 기관과 '식품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식품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체결했다. 고신대병원과 부산 아토피 파천식 교육정보센터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부산지역 초등학교 18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 등 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20개교와 부산지역 특수학교 전체 15개교 등 모두 35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오경승 병원장은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구축하는데 함께 힘을 합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1.]

재활의학과 김기찬 교수, 대한스포츠과학 운동의학회 회장 선출



고신대병원 재활의학과 김기찬 교수가 4월 2일(토)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스포츠과학 운동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기찬 교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미국 베일러 의대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이사과 대한임상통증학회 회장, 대한재활의학회 부울경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1993년 창간된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는 스포츠의학연구회의 전신으로 의사, 체육 분야 교수 및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매년 정기학술대회, 학술집담회, 연수강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최신 지식과 술기 그리고 경험을 나누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스포츠과학과 운동의학을 선도하는 학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김기찬 교수는 "지금까지의 스포츠의학은 엘리트 선수 위주로 돌아가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동호회와 생활스포츠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미 전문화된 부분도 많기에 생활체육과 접목된 부상예방과 재활정보를 전달하는 학회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2.]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획득



고신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2022년 3월 11일~2025년 3월 10일)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1주기 평가대상 기관 311곳 중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적절성 등을 충족한 27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고신대병원 임상시험 및 의학연구 윤리심사위원회(위원장 장태원, 이하 IRB)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평가기간 간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 등 5개 범주의 40개 평가기준을 모두 통과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장태원 교수는 "고신대병원 IRB는 앞으로도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9.]

Focus View



앰블런스 소원재단, ‘말기암 환우 소원 들어주기’ 위해 고신대복음병원에 앰블런스 기증



말기암환자들의 마지막 나들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운영중인 ‘앰블런스 소원재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고신대병원에 앰블런스를 기증하는 협약과 기증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기증된 앰블런스는 구세군의 자선냄비 국민성금으로 마련된 두 대의 차량중 한 대로 고신대병원을 기지로 삼고 부울경 지역의 말기암환자와 교통약자들을 위한 ‘앰블런스 소원재단’의 ‘소원 들어주기’ 운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말기암 환우들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와 앰블런스 기사 의료진등과 함께 하루 동안 환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호스피스 환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뜻깊은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방최초로 개설한 암센터와 환자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넘어 이제는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2.04.20.]

부산·울산 최초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 직업병 효율적인 관리 길 열어



고신대병원이 부산·울산 직업병 안심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충북(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산 울산지역은 고신대병원이 맡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부 김미애 국회의원, 하형소 부산지방노동청장,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 학교법인 고려학원 김종철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신대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되며,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한 다학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오경승 병원장은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2.04.22.]

소원앰블런스-고신대복음병원 의료진-세시봉 콘서트와 함께한 부울경 첫 소원나들이



앰블런스 소원재단이 고신대병원에 운영을 위탁했던 부울경 소원앰블런스의 첫 나들이가 가정의 달인 5월의 첫날인 지난 5월 1일에 이루어 졌다. 말기암 환자 옥 모(87세) 할아버지와 그 가족 및 봉사대원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조영남과 세시봉’ 공연에 기획사 측의 초청을 받아 앰블런스 소원재단의 앰블런스를 타고 고신대병원 의료진들의 케어를 받으며 뜻깊은 공연 관람을 마칠 수 있었다. 이날 아버지의 소원나들이에 동행한 큰 딸은 “평소 각자의 삶으로 바쁜 가운데 늘 엄격하신 아버지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건강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정히 소통하며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며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버지와 함께 따라 부르며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물 받은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세시봉의 멤버 윤형주 씨는 공연중 “오늘 고신대병원 의료진과 앰블런스 소원재단 차량을 통해 특별한 관객이 되게신다”고 언급해 소원나들이로 함께한 옥 할아버지에게 평생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물했다.

[2022.05.03.]

Focus View



‘THE 특별한 DAY 봄꽃이 오는 날’ 환우작품 전시회 개최



고신대병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수) 오전부터 병원 중앙로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THE 특별한 DAY -봄꽃이 오는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환우들이 제작한 수공예품은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직접 로비에서 홍보하고 판매했으며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환우들이 수공예로 제작한 카네이션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오경승 병원장도 전시장을 찾아 직접 환자들이 제작한 수공예품을 구입하면서 뜻을 같이 했다. 김호찬 낮병동 담당교수는 “원예·공예 작품을 제작하면서 환자들이 심리적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제작된 물품을 직접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환자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06.]

2022년 외과발전 세미나 개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다짐



고신대복음병원은 5월 4일(수) 장기려기념 암센터 대강당에서 외과학교실 발전세미나를 열고 외과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고신대병원 외과학교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외과학교실의 연구 활성화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개선과 발전방안 ▶외과학교실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의 세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고신대병원 외과 의료진들은 초대병원장 고(故) 성산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연구 활성화와 미래발전을 논의했다. 서경원 교수(위장관외과)는 “그동안 외과가 ‘힘들다, 어렵다’고만 말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대병원 외과의국은 위, 대장암 수술 뿐 아니라 위장관 외과,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유방외과, 두경부 갑상선외과를 포함한 장기이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로봇수술까지 감당하며 역사와 전통과 부울경을 대표하는 외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05.06.]

고신대복음병원, 고신교회 미래 목회자를 위한 장학금 전달과 무료검진 실시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이 지난 5월 3일(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방문해 고신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병원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날 화요경건회 설교는 고신대병원 김영대 원목실장(본문 막6:45~52, 제목-‘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이 맡았다. 오경승 병원장은 지난 4월 18일 개최된 부산지역 정기노회 5곳을 순회하고 기도요청을 했으며, 4월 25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개최된 제 13회 목사부부수양회에도 참석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병원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고신대병원은 개원71주년을 맞아 교단과 성도들에게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헬스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재정 건정성 회복, 병실 및 주차장 환경 개선, 우수 의료진 확보 5가지 제목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고신대병원은 경건회를 마치고 대외협력실장 옥철호 교수(호흡기내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세 진료과 전문의들이 함께 신대원에서 무료검진을 진행했다.

[2022.05.06.]

외래진료시간표

(2022년 6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윤병철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식도정맥류
	이정욱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서광일		●	●			●	●	●			간염,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이식, 간부전
	박현준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		●			●		●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내분비내과 990-6102	최영식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권수경		●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해외연수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 암
	박태훈		●								●	내분비(당뇨)질환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			●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암,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 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해외연수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경원	●	●	●	●	●	●	●	●	●	●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최윤정	●	●	●	●	●	●	●	●	●	●	소화기 질환
	손민영	휴 진										소화기 질환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제훈		●		●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김지원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신장내과 990-6108	임 학	●				●	●	●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혈분말치이식, 뇌사이식)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정연순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신호식	●	●			●	●		●	●		신장질환
	김예나		●	●	●					●		신장질환
	허수정										●	신장질환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두경부암,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무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옥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해외연수										당뇨발, 피부암, 하지재건, 두경부재건
	김홍일					●	●				●	미용, 수부외과, 미세수술
	김효영			●	●					●		눈꺼풀질환 (안검하수, 피부처짐증), 유방재건 (부분 절제), 피부 종양, 소아 수술
	김윤수			●	●					●		미용(코 성형), 유방 재건 및 유방 성형, 체형 성형(비만), 피부암 및 거대 모반(소아), 흉터 성형, 육창, 안면외상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이재현	●		●	●				●		●	근골격계재활(허리통증, 목통증, 어깨통증, 디스크 및 관절질환), 척추시술클리닉, 초음파시술클리닉, 심폐재활, 외상성 뇌손상, 연하재활
정형외과 990-6130	손정환										●	슬관절부병변, 관절염
	권영호	●					●					미세수술, 수부병변
	정소학			●				●				근골격계종양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최 영			●	●				●			소아정형외과, 슬관절
	김지연	●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해외연수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창주			●		●			●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임재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가정의학과 990-6155	최종순			●				●	●		●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 요법, 특이증상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완화의학, 노인의학
	공은희	●				●	●					암생존자 통합 건강관리, 임상영양, 가족건강관리,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		●			●		●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 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노인의학
	전공의			●							●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핵의학과 990-6660	전성민		●				●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희영								●			핵의학과 일반진료
	김범수				●						●	핵의학과 일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990-5070	김호찬	●	●				●	●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 (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				●				●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이윤나			●	●						●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일반 ※기분장애 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김현석			●	●			●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 성인기의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 ADHD, 성인 발달/지적장애) 및 보호자 교육 : 매주 목요일 오후
산부인과 990-6120	김원규			●	●					●	●	부인암, 종양,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	●			●		●				부인암,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고위험 산모
	오영림	●					●	●	●			부인질환, 산과
	윤향구			●						●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로봇수술
	강태경		●	●		●	●		●	●		부인암, 부인질환, 부인과 감염질환, 호르몬요법,내시경수술,로봇수술
위장관외과 990-6182	윤기영	●	●					●				식도,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장관기질종),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			위장관외과 일반진료

외래진료시간표

(2022년 6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두경부, 갑상선 내분비외과 990-6113	김구상				●						●	갑상선암, 갑상선양성질환, 고주파열치료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양승이	●	●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이지은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최소절개수술
유방외과 990-6113	김구상	●	●			●	●		●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유전성유방암클리닉: 월 오전 / 유방암경험자클리닉: 수 오후※
	최진혁	●			●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중앙성형클리닉: 목 오전※
	정성의			●	●		●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젊은유방암클리닉: 화 오후※
	이희승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대장항문외과 990-6181	안병권			●				●				대장, 직장암,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현	●	●			●	●		●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					●	●	대장, 탈장, 복강경로봇수술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990-6112	신동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	●					●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췌클리닉
	문형환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조지훈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응급외과 990-6359	정주원				●							응급외과
	이철민								●			응급외과
	김영식						●					응급외과
알레르기내과 990-6152	김희규	●	●			●		●	●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최길순			●	●		●			●	●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비뇨의학과 990-5078	류현열	●				●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최 성		●	●				●	●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택상	●					●			●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수환				●	●				●		로봇수술, 결석
	서원태				●						●	비뇨기계 일반질환
흉부외과 990-6127	박성달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김종인		●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하지정맥류, 흉부외상
	조성호				●	●	●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이해영	●	●					●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성인심장질환, 흉부외상
	고택용						●		●	●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흉부외상, 일반흉부
	이상호			●						●		성인심장, 중환자, 외상
신경과 990-6106												
	유봉구	●		●	●	●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		●	●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	●	운동장애, 파킨슨
	허소영		●				●	●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이진형			●			●			●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이원구	●	●	●	●			●	●			수면클리닉, 뇌전증, 수술 중 신경계 감시, 두통, 어지럼증 ※수면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990-6136	이강대	●						●		●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환호		●				●	●				이과 질환/만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인공와우이식
	권재환				●	●				●		비과, 중이수술, 안면외상성형
	이형신	●			●	●						갑상선암, 구강암 (설암), 인두암 (편도암, 하인두암), 후두암, 목의 혹, 침샘질환, 음성장애
	김주연		●	●				●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증, 코성형 클리닉
	김영준						●				●	일반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990-6123	김서빈										●	일반 이비인후과
	홍유라				●			●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			●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열, 신생아 황달, 지체중 출생아, 자궁내 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반혈관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렴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dimple, 배꼽 육아종),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이정현		●				●		●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 (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갑상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구민	●					●				●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오지은	●	●				●				●	소아감염질환(요로감염, 중이염,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 결핵(잠복결핵, 활동성 결핵), 불명열
	공섬김	●			●			●		●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					●		●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소윤			●			●	●			●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신경외과 990-6124	전공의				●			●				
	박용석	●	●				●		●			뇌혈관, 뇌종양
	조혁래	●	●						●	●		뇌종양, 두개저종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	●						●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	●				●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	●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피부과 990-6146	심용우						●	●				신경외과 일반질환
	장민수	●	●				●	●				여드름/주사, 건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박종빈				●	●			●	●		피부과 일반질환, 피부종양, 알레르기피부질환
	장지윤	●									●	피부과 일반질환
일반내과 990-6359	전공의	●	●	●	●	●	●	●	●	●	●	피부과 일반질환
	김방주	●	●	●	●	●	●	●	●	●	●	일반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관절소염과 클리닉
	김윤경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관절소염과 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이진영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전민지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치과 990-5150	진 술			●								감염내과 일반질환
	김희진	●	●	●			●	●	●	●	●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					●	●			●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
	강은숙			●	●		●				●	치과 일반질환
직업환경의학과의 990-6742	김정원	●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							●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경제적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비밀스런
생명의 **신호**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몸의 소리**를
듣는데부터 **시작**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